



소단원 지필 평가

3. 능동적인 언어생활

(1) 예측하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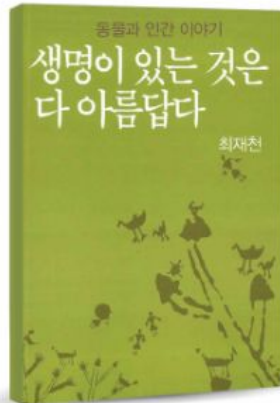
학년 반 번 이름

점수

확인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

알면 사랑한다

동물도 남의 자식 입양한다	17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	55
동물도 죽음을 애도한다	65

동물 속에 인간이 보인다

동물 사회의 열린 경쟁	99
거미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	115
까치의 기구한 운명	144

(나) 몇 년 전 일이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바빠 건넌 중 저만치 앞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보았다. 위험할 터인데 왜 저러나 싶어 살펴보니 그의 앞에 큼직한 자동차가 인도를 꼭 메운 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도로라도 돌아가려는 그에게 차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도와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차들은 여전히 매정하게 우리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세워 달라고 내가 손을 흔들 때면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곤 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휠체어는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차도로 내려가 달려오는 차들을 잠시 멈춰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나는 곧바로 차도에 뛰어들어 달려오는 차들을 막아 세웠고, 그는 차도로 우회한 후 다시 인도로 올라와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는 비교적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방금 벌어진 일을 되새기며 씁쓸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엉거주춤 그의 곁에서 그와 보조를 맞추며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어색해하는 나에게 그는 먼저 서둘러 가라고 권했다. 나는 결국 그와 몇 번의 인사를 나누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꾸 몇 걸음 건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나를 향해 그는 가끔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당시 나는 외국에서의 긴 연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외국보다 장애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미국에는 건물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장애인 전용 통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출신의 장애인 학생을 위해 미국의 한 행정 대학원이 건물 구조까지 바꿨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중략)

자연계는 언뜻 보면 높고 병약한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마는 비정한 세계처럼만 보인다. 하지만 인간에 버금가는 지능을 지닌 고래들의 사회는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가 둘러싸고 거의 들어 나르는 듯한 모습이 고래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되었다.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배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한다.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엄연히 허파로 숨을 쉬는 짐작이 동물이다. 그래서 상처를 입어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없게 되므로 쉽사리 목숨을 잃는다. 그런 친구를 혼자 등에 업고 그가 충분히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떠받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또 많은 고래가 육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동료 고래 곁에 그냥 오랫동안 있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게도 휠체어를 직접 밀어 줄 사람들도 그들이 스스로 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 주고 따뜻하게 함께 있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당당하

게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뒤 그저 다른 이들을 대하듯 똑같이만 대해 주면 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해야 밝혀질 일이겠지만 남을 돕는 고래가 모두 다친 고래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것과 전혀 연고도 없는 장애인을 돕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친 고래를 등에 업고 있는 고래가 가족이나 친척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다친 고래를 가운데 두고 보호하는 그 모든 고래가 다 가족일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고래들의 사회에 우리처럼 장애인의 날이 있어 “장애 고래를 도움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배웠을 리 없건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래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글을 읽기 전 예측하기

01 (가)에서 책의 내용을 예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특성을 다루고 있을 것 같아.
- ②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을 다룬 책일 것 같아.
- ③ 글쓴이가 장애인을 만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
- ④ 동물이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아.
- ⑤ 동물과 인간이 교감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책인 것 같아.

단답형 글을 읽기 전 예측하기

02 (가)에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한 가지만 쓰시오.

글의 내용 이해하기

03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친 고래들을 도와주는 무리는 모두 가족들이거나 가까운 친척이다.
- ②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이 훨씬 잘 갖추어져 있다.
- ③ 고래들은 다친 동료가 충분히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등에 업고 떠받쳐 준다.
- ④ 글쓴이가 휠체어를 밀어 주려고 하자 장애인은 차들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다.
- 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도운 뒤 글쓴이는 그와 한참을 함께 건다가 헤어졌다.

글의 내용 이해하기

04 (나)의 글쓴이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장애인의 수가 많다.
- ③ 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갈 의식이 부족하다.
- ④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한다.
- ⑤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서술형 글을 읽기 전 예측하기

05 (나)에 나타난 고래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조건

- 고래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을 서술할 것.
- ‘~처럼 우리도 ~야 한다.’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예측하며 읽기

06 ㉠을 바탕으로 예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이어서 소개하겠구나.
- ② 글쓴이가 만난 장애인이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겠구나.
- ③ 외국의 교통 문화와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의 무질서한 교통 문화를 비판하겠구나.
- ④ 글쓴이가 길을 가로막힌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겠구나.
- ⑤ 글쓴이가 한국에서 운전하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난폭 운전자들 때문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0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
- ②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
- ③ 사회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
- ④ 그들이 길에 나서기 너무도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
- ⑤ 자동차 운전자들이 장애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

[0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는 어느 날 내리는 겨울날, 서북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의 겨울 준비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나 봅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방한용 옷을 마련해서 서둘러 보내라 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보낸다고 했던 옷을 가만히 보니, 전혀 추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솜을 넣어 만든 두툼한 솜옷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갓옷은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종이 옷’이라니요! 얇은 종이를 추위를 막으라니, 이 무슨 해괴한 말일까요?

(나) 그러나 ‘갑절이나 추운 변방’이라 ‘촉은’하다 해 놓고 인조는 군사용품 목록에 버젓이 종이 옷을 포함했습니다. ㉡ 쉽게 찢어지고 물에도 약한 종이, 그 종이를 옷을 만들 수나 있는 걸까요? 또 종이 옷을 만들어 보내면 군사들의 겨울나기에 과연 도움이 되기는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해답이 이제 곧 등장하니까요.

(다) ㉢ 목화를 키우기 어려운 변방에서 군사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많은 솜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변방이 아닐지라도 조선의 생산 환경 속에서 솜을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솜을 대신하고, 솜과 함께 썼을 때 그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종이였습니다.

(라) 종이 옷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옷감과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어 꿰매면 끝이지요. 비록 두툼한 솜만큼 따뜻하지는 않을지라도 옷감 사이에 종이를 넣어 꿰매 입으면, 옷감만으로 옷을 지었을 때보다 찬 바람을 막는 효과가 한층 커집니다.

(마) ㉣ 그뿐만 아니라 솜과 종이, 옷감을 함께 바느질하면 종이의 거칠거칠한 표면 덕분에 마찰력이 생겨서 솜이 미끄러져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이의 이런 효능은 방한용품이 턱없이 부족한 변방에서 군사들의 추위를 막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요.

(바) 낙북지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람의 답안지를 말합니다. ㉤ 종이가 워낙 귀했던 때라 신비들의 답안지까지 따로 거둬서 알뜰하게 사용한 것이지요. 먹물로 쓴 글자 때문에 다소 지저분해 보이지만 해도 종이의 성질은 그대라해서 옷감 안쪽에 넣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솜과 옷감, 털가죽과 각종 방한용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북지는 군사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싶은 (㉠) 을 덜어 주는 고마운 재료였습니다.

예측하며 읽기

08 ㉠~㉤을 활용하여 예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선의 왕 인조의 일화에 담긴 의미나 인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 ② ㉡: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 같아.
- ③ ㉢: 솜을 대신해 보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 ④ ㉣: 앞의 문단에 이어서 종이를 옷을 만들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덧붙이는 내용이겠구나.
- ⑤ ㉤: 이 글은 물자를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쓴 글이야.

단답형

글의 주제 파악하기

09 ㉢에 들어갈 내용을 예측하여 2어절로 쓰시오.

예측하며 읽을 때의 효과 이해하기

10 글을 예측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글 읽기에 집중할 수 있다.
- ②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 ③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④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
- ⑤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예측하며 읽는 방법 이해하기

11 글을 읽을 때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와 예측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의 중심 소재를 예측해 본다.
- ② 글의 제목을 보고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예측해 본다.
- ③ 책의 표지를 보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 ④ 차례를 보고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⑤ 차례를 보고 내용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